

# 〈국외출장 결과보고서〉

1. 출장자: 이상준 한반도·동북아연구센터장
2. 출장일시: 2012년 7월 22일(일)-28일(토)(5박7일)
3. 출장지: 베트남(하노이), 태국(방콕), 미얀마(양곤)
4. 출장목적: 베트남, 미얀마, 방콕의 국제개발기구를 방문해서 인프라분야의 국제협력 실태와 향후 북한개발에 대한 시사점 조사
5. 출장일정
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 수행 내용	접촉인물
7.22(일)	인천	베트남 하노이	o [KE 679]인천공항 출발(19:30) → 하노이 도착(22:05)		
7.23(월)	베트남 하노이		UNDP 베트남 자원환경부	<b>오후 2시: UNDP</b> 간담회 주제: 베트남 환경수자원부문 국제협력 성과와 과제	Mr. Bakhodir Burkhanov
				<b>오후 4시:베트남 자원환경부</b> 간담회 주제: 베트남 지하자원개발관련 국제협력 성과와 과제	Ms. Nguyen Thi Thu Hong, Director
7.24(화)	베트남 호치민	태국 방콕	o [TG 561]하노이 출발(10:35) → 방콕 도착(12:25)		
7.25(수)	태국 방콕		UNESCAP	<b>오전 10시:</b> UNESCAP의 국제협력 경험	하동우 (Director) Pierre Chartier (Economic Affairs Officer)
7.25(수)	태국 방콕	미얀마 양곤	o [TG 305]방콕 출발(17:50) → 양곤 도착(18:45)		
7.26(목)	미얀마 양곤		KOTRA 양곤 무역관	<b>오전 10시</b> 미얀마 최근 경제현황 브리핑 및 토론 박철호 관장, 김근향 차장	

		JICA 양곤사무소	<u>오후 2시</u> 일본의 개발지원 동향 Katsuyoshi Saito 수석부소장, Matsuoka Hajime 과장
7.27(금)	미얀마 양곤	UNDP 양곤사무소	<u>오전 10시</u> UNDP의 양곤 개발지원 동향 Akbar Usmani 수석부대표, Ofelia Eugenio 프로젝트 매니저
7.27(금) 7.28(토)	미얀마 양곤	방콕경유 인천공항 도착	o [TG306]양곤 출발(19:45) → 방콕도착(21:40)→ 방콕출발 (23:45)인천공항 도착(07:05)

- 본 협동연구과제의 총괄연구책임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부문협동연구 참여기관 담당자 참여(본원 참여자까지 총 6인)
  - 통일연구원: 임강택 선임연구위원, 전현준 선임연구위원, 황병덕 선임연구위원
  - 한양대학교: 장형수 교수
  -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: 이종무 소장
  - 국토연구원: 이상준 센터장

▣ 주요 일정 및 논의 내용

◆ 7월 23일(월) 하노이 일정

- 1) UNDP 베트남 사무소 방문(오후 2시): 부소장 Mr. Bakhodir Burkhanov와 면담
  - UNDP 베트남 사무소는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먼저 현지에 진출한 국제기구로서 민주적 협치와 시민참여, 동반성장, 지속가능한 개발, 기후변화와 위기감소 등의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
  -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베트남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(One Plan and CCPD(Common Country Program Documents) 2012-2016)하여 추진 중에 있음

- 이 계획은 동반성장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루는 중점분야,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및 보호를 다루는 중점분야, 협치와 참여를 다루는 중점분야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
- 동반성장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루는 중점분야에서는 빈곤감축과 지속가능한 개발, 위기예방과 회복 등에 대한 전략계획이 수립
-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및 보호를 다루는 중점분야에서는 빈곤감축과 함께 사회적 보호와 성 평등에 대한 전략계획이 수립
- 협치와 참여를 다루는 중점분야에서는 민주적 협치와 성 평등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계획이 수립
- UNDP 베트남 사무소는 베트남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, 협력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장애요인은 없음
-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위기 이후 UNDP의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고 있는데, 그것은 주요 기부국들이 있는 북유럽의 경제상황 악화 때문임
- UNDP 베트남사무소의 역할이 각종 지원사업 중심에서 점차 정책자문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추세임

<하노이 UNDP사무소 방문>



2) 베트남 자원환경부 방문(오후 4시): 국제협력국장 Ms. Nguyen Thi Thu Hong와 면담

- 베트남 자원환경부에서는 주로 토지이용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인적 교육 훈련에 ODA를 활용하고 있음
- ODA활용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, 지원국이 자국이나 타국의 기술진을 활용하여 수혜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을 하는 문제가 발생기도 함
- 결국 ODA활용에 있어서 성공의 관건은 지원국과 수혜국간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관계 구축임
- 2000년대 초반 베트남은 일본의 ODA를 거절한 사례가 있는데, 그것은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임
-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, 사회적 안전, 빈곤감축, 환경보호분야에 주로 ODA지원을 받아 왔음
- ODA로 조달된 대부분의 자금은 제도개선, 인적역량 강화, 지식 및 경험전수, 현대적 관리기법 전수, 전문적인 시범사업 개발 등에 투입되었음
  - 자원환경부는 지금까지 토지법, 수자원관리법, 환경보호법 등 주요 관련법 제정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해 왔음
-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ODA를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2002년 베트남 자원환경부가 설립된 이래 대략 20개의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5600만 달러의 ODA지원을 통해 완료되었음
  -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대략 600만 달러
  -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이러한 ODA지원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
- 현재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44개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진행중
  -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대략 3,650만 달러
  - 이렇게 증가하는 ODA추세는 국제사회가 베트남 자원환경부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

- ODA활용에 있어서의 확인된 사항들과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음
- 기후변화에 대한 자원환경부의 새로운 ODA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고 있음
- 정부의 경제 및 재무부처는 예산지원모델(budget support model)을 선호하고 있는 데 반해, 자원환경부와 기타 부처들은 일반 정부 예산 채널을 통한 ODA약정 기금 활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
- 이것은 선행 사례에서 일반 정부 예산 채널을 통한 ODA약정 기금 활용이 불투명 하였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
- 해당 기관은 초기에 연간 정책사업을 확정 짓는 단계에만 관여하게 되고 그 이후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
- 베트남 자원환경부의 ODA사업은 주로 환경보호, 수문기상, 기후변화 등의 부문에 집중되었음
- 수자원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ODA는 강력한 국제컨설팅을 포함한 기술지원 형태로 이루어졌음
- ODA자금 집행은 베트남 자원환경부가 설정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기부국가에서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됨
- ODA지원에 따른 사업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 규모는 수백달러에서 수백만달러까지 규모가 다양하고, 지원과 차관까지 성격도 다양하며, 양자협력, 다자협력 등 협력양태도 다양해지는 추세임
- ODA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 가운데 주요 문제들로서는 사업의 지연, 낮은 지급금, 취약한 모니터링과 평가, 역량이 부족한 정부관료들, 단계적인 사업분석이 없이 진행되는 컨설팅 등을 들 수 있음

#### <하노이 베트남 자원환경부 방문>



◆ 7월 25일(수) 방콕 일정:

- 1)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(UNESCAP) 방문(오전 10시): 하동우 국장 (Director of Transport Division), Pierre Chartier, Economic Affairs Officer of Transport Division 면담
- 북한을 대상으로 에너지, 환경, 교통, 통계 등 4개 분야에서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
    - 2004년 6월에 UNESCAP 현장평가단의 조사 작업이 이뤄졌고(needs assessment fields), 2005년 10월에 훈련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었음
    - 이에 따라 2006년 6월에 사업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북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서가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(UNESCAP)와 북한 사이에 체결됨
    - 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이 다자적 양자 지원(multi-bi) 방식으로 4,171,056 달러의 신탁기금을 제공함
    - 그러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훈련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음
    - 이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2012년 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음
  - 현재까지 진행된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
    -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북한 바이오가스(biogas) 기술 훈련과정이 진행됨
    - UNESCAP과 중국 농업부 소속 바이오가스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, 북한에서는 10명의 자연과학학술원 및 북한과학기술협회 연구자 및 관료들이 참가하였음
    - 2011년 4월에 자연자원과 재해관리를 위한 원격탐사와 지리정보시스템 응용 관련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. UNESCAP과 중국과학원 산하 원격탐사 응용연구원 등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, 북한의 원격탐사분야 전문가 18명이 참가하였음
    -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북한의 동북아시아 지역 및 경제협력 체고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
    - UNESCAP과 태국 아시아기술연구소(AIT)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, 10명의 북한 정부 관료와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였음
    -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MDGs 평가를 위한 통계역량 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
    - UNESCAP과 필리핀 통계연구훈련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,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15명이 참가함

- 2012년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호 및 통신 부문, 화물 및 여객 수송 부문 등 두 부문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 진행됨
  - UNESCAP과 베트남 철도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는 북한의 철도성에서 20명이 참여하였음
- 각 훈련 프로그램은 평균적으로 1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됨
- 세부 예산은 북한의 참가 기관에 대한 무상 지원(grants), 훈련 프로그램 진행비, 기타 비용(자문비, 공무 출장비 등), 북한에서의 현지 비용(국내 여비 등)으로 구성됨
  - 북한 현지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함
  - 기 진행된 환경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면 참여조직에 대한 무상지원 (10,000\$), 훈련 프로그램(40,200\$), 기타 비용(17,000\$)로 총 67,200\$가 소요됨
- UNESCAP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
- 평균 10만 달러로 약 10~20명 정도의 북한 관료 및 전문가들을 2~4주 정도 해외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음
  - 이것은 북한 참가자 1인당 5천~1만 달러의 비용으로 북한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, 이들에게 외부 세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
  -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하게 될 때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관료 및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임
  -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프로그램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

#### <방콕 UNESCAP 방문>



◆ 7월 26일(목) 양곤 일정:

1) 코트라 양곤 무역관 방문(오전 10시): 박철호 관장, 김근향 차장 면담

- 그동안 국제사회와는 담을 쌓고 있어서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은 미얀마에 대한 최근 개황과 정치, 경제 등에 관한 브리핑 받음
  - 최근 미얀마 정부가 민주 선거를 실시하는 등 개혁조치에 나서고, 미국, 유럽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있음
  -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절정에 달하였던 2009년 7월 방문 때와 비교해서 아직 경제제재 완화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음
  
- 미얀마의 현재 정치 상황은 우리 역사에 비견해보면, 군부 독재정권 3기인 노태우 정권 초기 상황과 비슷
  - 1958년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네윈 장군은 1962년부터 27년간 군부 통치(박정희 정권에 비견)
  - 이후 탄세 장군이 27년 간 군부 독재를 이어감(전두환 정권에 비견)
  - 작년에 세인 장군이 대통령에 선출되어 군부 독재 3기 시작(탄세 장군의 심복 출신)
  
- 현행 미얀마 헌법은 미얀마 의회의 1/4을 ‘현역’ 군인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음
  - 또한 미얀마 대통령은 그 배우자, 직계 및 직계의 배우자까지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아야 선출 가능함
  - 따라서 사별한 남편과 며느리가 외국국적인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수치 여사는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은 불가능한 상황
  -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70%의 찬성이 필요.
  
- 미얀마 정부는 2013년 ASEAN Games 개최, 2014년 ASEAN 의장국을 계기로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
  - 최소한 2014년까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민주화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

<양곤 KOTRA 방문>



2) 일본 국제협력처(JICA) 양곤 주재사무소 방문(오후 2시): Katsuyoshi Saito 수석부소장, Matsuoka Hajime 과장 면담

- 미국, 유럽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에 일본은 동참하지 않았음
  - 일본 JICA (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)는 미얀마에 주재사무소를 상주시켜 왔음(양곤 주재 일본 대사관 소속으로 독립된 사무소 유지)
  -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분위기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왔음
  
- 일본은 2011 회계연도(2011.4.1. ~ 2012.3.31.)에 약 1억 달러의 지원을 시행하였고, 향후 중점 개발지원 분야로서 양곤 시내 도시개발, 수송, 에너지개발 분야를 선정하였음
  
- Saito 수석부소장과 Saito 과장은 1984년 북한의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으로 단교한 미얀마와 북한이 2007년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이유와 미얀마와 북한 간의 무기, 핵개발 등 커넥션에 관심을 표명함

<양곤 JICA 방문>



3) 유엔개발계획(UNDP) 양곤 주재사무소 방문(7월 27일 오전 10시): Akbar Usmani 수석부대표, Ofelia Eugenio ICDP/CDRT Project Manager 면담

- UNDP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여타 유엔기관과는 달리 개발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관이어서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 중인 시기에는 미얀마에 대한 제한된 지원(restricted mandate to UNDP)만 허용되었음
  - 이제 본격적인 개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UNDP는 3개년 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(Country document program for Myanmar 2012~2015)
  - 향후 UNDP는 상황이 개선되면 3개년 이상의 장기 개발지원 계획도 수립할 예정
  
- UNDP는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양한 UN 지원기구들 간의 원조조정(aid coordination)을 담당하는 UN representative 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  
- Akbar Usmani 수석부대표는 미얀마 경제와 국제협력 관련 최고의 전문가로 우 밍 박사를 추천하였음
  - 우 밍 박사는 미얀마 정부의 경제자문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Myanmar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(MDRI) 소속임

<양곤 UNDP 사무소 방문>

